

A. 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

–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김태우**

〈차 례〉

1. 들어가기
2.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체제와 개요
3. 『형태론』과 『문법 개요』의 대조
4. 『문법 개요』의 문법 의식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의 일본어학자·한국어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알렉산더 홀로도비치에 의해 1937년과 1954년에 발간된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과 『한국어 문법 개요(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의 검토를 통해, 이 저서가 가지는 연구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 두 책에서 홀로도비치는 일반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를 분석하여 한국어 문법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동사의 문법 범주로 시제·법·태·상·인칭의 다섯 가지 문법 범주를 최초로 확립하였고, 조사라는 품사를 설정하였다. 한국어에 중간 동사라는 독립적으로 중동태라는 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증거성 범주를 세우기도 하였다. 통사론에 있어서 조사 ‘은/는’을 정보 구조와 관련시킨 점도 특기할 만하다. 러시아어 문법에 경도되어 인칭 범주, 조사, 형태·음운론적 어기, 일성분문 등을 설정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두 권의 문법서는 현재까지도 유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연구교수

한 여러 가지 논의가 포함되어 있는 선구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어 문법, 인칭, 중동, 증거성, 정보 구조

1. 들어가기

레닌그라드 유형론 학파 또는 홀로도비치 학파는 1960년대부터 집단적 유형론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Типология каузатив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й каузатив(The Typology of Causative Constructions : Morphological Causatives)』(1969), 『Типология пассив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 диатезы и залогии(The Typology of Passive Constructions : Diatheses and Voices)』(1974) 등의 선구적 업적을 이루어냈다.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집단의 수장은 알렉산더 홀로도비치(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1906~1977)였다. 이처럼 홀로도비치는 일반언어학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학문적 여정은 동양어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¹⁾ 레닌그라드 대학 극동학과에서 콘래드의 지도 아래 일본어학을 배우고 대학원에서 일반언어학을 전공한 홀로도비치는 한국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1947년부터 레닌그라드 대학의 한국어 학과장이 된 홀로도비치는 현대 한국어뿐 아니라 중세 한국어,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여러 제자를 육성하였다.²⁾ 1961년 언어학과의 학과장으로 부임하며 레닌그라드 유형론 학파를 이끌게 되어 더 이상 한국어 연구에 집중하지는 못하였으나, 1930년대부터 이 시기까지 홀로도비치는 사전과 한국어 문법 연구서를 포함하여 20편이 넘는 한국어에 대한 글을 집필하였다.³⁾

1) Khrakovsky 외(1993)은 홀로도비치의 학문 여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어와 일반언어학을 공부한 대학원까지의 시기를 제1기,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친 1932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를 제2기, 언어 유형론에 투신한 1960년대 이후를 제3기라고 하였다.

2) 홀로도비치의 한국학자로서의 생애는 Васильев(2004)를 참고할 수 있다. 언어학자로서의 생애는 Khrakovsky 외(1993, 1-)이 참고된다. 홀로도비치는 1947년부터 일본어 학과장과 한국어 학과장을 겸임하였다. 당시 한국사 학과장은 N. V. 큐네르가 담당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홀로도비치의 다양한 저작 중, 1937년과 1954년에 쓰여진 한국어 문법에 관한 두 권의 책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과 『한국어 문법 개요(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⁴⁾의 검토를 통해,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쓰여진 두 권의 한국어 문법서에 드러난 저자의 한국어 문법 분석의 변화를 살펴 이 책이 지니는 연구사적 의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권의 책은 당시 외국인 연구자로는 드물게 실용적·교육적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구조주의 언어학적 분석 훈련을 받은 정통 언어학 연구자가 한국어의 구조를 기술한 연구서라는 특징이 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전반기까지 외국인에 의해 쓰여진 대부분의 한국어 문법서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쓴 예문과 실습 중심의 학습서인데 반해⁵⁾ 이 책은 풍부한 예문과 함께 깊이 있는 언어학 이론이 가미된 학술적 연구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두 권의 책은 서양인이 쓴 다른 한국어 문법서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국어학의 연구사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름만이 거론될 뿐 그 속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 언어학자 菅野裕臣에 의해 『한국어 문법 개요』가 수차례 소개되었고⁶⁾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역시 菅野裕臣가 『한국어 문법 개요』의 전문을 번역하기에 이른다.⁷⁾

한국에서도 몇 차례 이 책의 내용이 소개된 바 있기는 하다. 고영근(2001

3) 홀로도비치의 한국어학 관련 저작에 대해서는 간노 역(1971)와 Васильев(2004)를 참조할 수 있다. 홀로도비치의 한국 문학 번역은 아주 유려하여 21세기에 들어서도 많은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4) 최지영(2016)에 따르면 2014년에 『한국어 문법 개요』의 제4권이 모스크바에서 간행되었다고 한다. 본고는 1954년 간행된 이 책의 제1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5) 로스, 스콧, 리델, 언더우드 등 19세기 말의 문법서는 물론이고, 20세기에 쓰여진 에카르트나 로트, 로머의 문법서 등은 체제에서부터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점이 분명하다. 에카르트, 로트, 로머의 문법서에 대해서는 고영근(2010), 박보영(2015), 조원형(2016, 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菅野裕臣(1965)와 菅野裕臣 譯(1971)이 있다.

7) 이 번역본은 간다외국어대학에서 간행하는 『韓國語學年報』 제5호와 제6호에 각각 『朝鮮語文法概要』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 36~37)에서 러시아/소련 지역의 한국어 연구를 다루며 『한국어 문법 개요』가 언급되었다. 홍택규(2000)은 『한국어 문법 개요』를 전반적으로 소개한 글이고 Belyakov(2008)은 『한국어 문법 개요』 중 ‘통사론’ 부분만을 검토한 연구이다. 이후 이 두 책이 영인되면서⁸⁾ 홍택규 교수에 의해 간략한 소개글이 붙었다. 또 콘체비치 편·김영일 옮김(2000)에서 『한국어 문법 개요』의 형태소(3절~12절)가 번역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대강이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짧은 서평이라는 한계가 있고, 특히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홀로도비치의 두 권의 한국어 문법서는 언어학자에 의해 쓰여진 연구서라는 점에서 그 속의 내용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노 역(1971)과 홍택규(2000)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상당한 수준의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 문법 개요』의 서문에서 홀로도비치는 이 책을 1949년 북한에서 나온 『조선어 문법』과도 다르며 Ramstedt의 『A Korean Grammar』와도 다른 기술 문법서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또한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도 현저하게 다르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홀로도비치의 두 저작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서문에 언급된 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홀로도비치가 제기한 여러 가지 분석 중 현대의 관점에서도 흥미할 만한 논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2.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체제와 개요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이하 『형태론』)은 손으로 쓰여진 책으로 람

8) 두 책은 『역대한국문법대계(II) 제2부 제46책』에 수록되어 있다.

9) 홀로도비치는 1951년 Ramstedt의 『A Korean Grammar』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

스테트의 『A Korean Grammar』보다 2년 빠른 1937년 발간된 러시아어로 쓰여진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이다.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은 1935년부터 1936년 모스크바 동방학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수업의 결과물이다. 모스크바 동방학연구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총 169면이고,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론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총 158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다.¹⁰⁾ 『한국어 문법 개요』(이하 『문법 개요』)는 1954년 모스크바 외국어문헌출판사에서 발행된 320면의 책으로, 음성학·형태론·통사론의 세 가지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음성학은 2개의 절로, 형태론은 92개의 절로, 통사론은 60개의 절로 이루어져 총 15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 따르면 『문법 개요』 역시 레닌그라드 대학의 한국어 강의를 손질한 것이며 한국어학과의 학부 고학년과 대학원생을 위한 교재로 준비된 것이라고 한다. 『문법 개요』에 사용된 예문은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그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형태론』		『문법 개요』	
절 제목	세부 내용	절 제목	세부 내용
		음성학	한국어의 음성 구조 1~2절 : 한국어 음성학, 방언 음성학, 정서법
	1. 동사	형태론	1. 단어의 구조
동사의 구조	1~7절 : 동사의 형태론적 구조 8~47절 : 동사의 형태·음운론적 분류		형태소 3절 : 어근, 용언·체언 어근의 (형태)음운론적 교체 4~11절 : 단어의 구성 12절 : 어기와 어간
동사의 사회적 형식	48~59절 : 청자 높임법		문법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단어

10) 여기에는 따로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해에 나온 『소비에트 대백과사전』의 ‘한국어(КОРЕЙСКИЙ ЯЗЫК)’ 항목의 참고문헌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 항목에는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 언더우드의 『한영주언』과 『한영문법』, 스콧의 『영한사전』, 예카르트의 『조선어 교제 문전』, 쿠즈민의 『한국어 초급 교재(Элементарное пособие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푸칠로의 『로한주언』, 김병옥의 『한국어 학습 교제(Пособие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가 인용되어 있다.

문법 형식	60~65절 : 문법 형식의 유형	2. 품사와 소사류	명사	13~20절 : 명사의 구조, 의존명사, 유·무정성, 수, 격	
	66~77절 : 시제			수사	21~26절 : 기·서수사, 분류사 등
	78~87절 : 법(mood)		동사		27~29절 : 동사의 구조·종류
	88~92절 : 태			30~34절 : 자·타동성, 태	
	93~97절 : 상			35~40절 : 시제	
	98절 : 인칭(-더-)			41~42절 : 동작 양식	
2. 형용사				형용사	43~45절 : 법, 양태, 부정, 인칭(-시-)
형용사의 구조	99~101절 : 한국어 형용사의 일반적 특징		46~54절 : 종결형 어미(문장 형식, 서법, 높임법)		
형용사의 사회적·문법적 형식	102~109절 : 형용사의 형태·음운론적 분류		55~71절 : 접속형 어미	부사	72~76절 : 형용사의 구조·분류, '있다·없다'의 문법 범주
3. 명사			부사		77~85절 : 부사의 구조·분류
명사의 구조	110~114절 : 형용사의 사회적·문법 형식		대명사		86~88절 : 의문·부정·긍정대명사
	3. 명사		후치사		89~92절 : 명사·동사파생 후치사, 비파생 후치사
	115~116절 : 명사의 일반적 특징	소사	93~94절 : 소사의 개념·목록		
	117~124절 : 명사의 형태·음운론적 분류	접속사	접속사의 분류, 목록		
125~144절 : 격	3. 명사		1. 단문		
145~147절 : 조사(auxiliary)	3. 명사		95~98절 : 문장 성분, 어순, 문장 성분과 품사의 관계		
수사	148~154절 : 수사의 유형, 분류사	동사론	주어	99~106절 : 주어의 품사, 주어의 격표지, 정보 구조	
부사	155~158절 : 부사의 유형·파생법		술어	107~110절 : 술어의 종류, 비전형적 종결 술어	
			보어	111~113절 : 보어의 품사, 특수보어	
			상황어	114~117절 : 상황어의 품사	
			규정어	118~121절 : 규정어의 품사	

부가어	
동종성분	122~124절 : 개념, 결합 방식
일성분문	일성분문의 개념 및 종류
2. 복합문	
종속복문	125절 : 종속복문의 특수성
부가문	126~143절 : 부가문의 분류·기능
병립복문	144절 : 병립복문의 유형
직접화법	145~148절 : 형태·결합·어순
간접화법	149~154절 : 형태·결합·어순, 간접인용 복합어미, 강조화법

목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두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책은 한국어의 형태론 분석에 집중한 책이다. 『형태론』은 제목에서 이미 형태론만을 다루기로 한 책이고 『문법 개요』는 총 154개의 절 중 92개의 절이 형태론을 설명하고 있다. 형태론에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형태음운론, 조어론, 품사론, 형태통사론(굴절과 곡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형태음운론이 음운론이라는 독립적인 장이 아닌 형태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마르주의의 영향이라고 한다(정광 1999 : 146). 둘째, 명사와 동사를 하위분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유럽어에서 굴절과 곡용 패러다임이 설정된다는 사실에 이끌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어는 명사와 동사의 종류에 따라 굴절 양상이 다르다. 한국어 역시 이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 듯한데, 이 조건을 음운론적인 데에서 찾은 것이다. 그 결과 한국어는 어미가 굴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간이 굴절하는 것처럼 기술하게 된다(3.4.에서 후술). 셋째, 동사에 표현되는 문법 형식을 시제·법·태·상(동작 양식)·인칭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국어 문법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管野 譯 1971 : 190). 『형태론』과 『문법 개요』에서 용어의 변화를 제외하고 큰 변화는 없으나, 인칭 범주를 이루는 형태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3.5.에서 후술). 넷째,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어 문법의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 동사에 표시될 수 있는 문법 범주라든지, 품사 설정, 문장

성분의 명칭, 문장의 분류 등이 러시아어 문법과 같다.

전반적으로 두 책은 관찰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세밀한 기술과 분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기술과 분류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어의 문법적 틀을 이용하고 있는데, 몇몇 곳에서 언어 범주를 정치사상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듯한 부분이 있다. 홀로도비치가 마르와 학문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¹¹⁾과 1950년 소련의 언어학 대토론회 이후 소련의 언어학 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이 이와 관계된다.

『형태론』에서는 한국어의 높임법에 대해 봉건제의 계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봉건제-자본주의 관계를 파괴한다면 언어에서 높임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예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겪은 소련 동부의 한인들은 높임법이 다섯 등분이 아닌 두 등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의 구조가 사회의 구조 및 그 경제적 기반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부 구조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마르크주의의 정신과 상통한다.¹²⁾

한편 『문법 개요』의 서문에서는 1950년의 언어학상 토론을 고려하고 스탈린의 저술을 고려하여 1937년과 1938년의 저작¹³⁾과는 현저히 다른 기술을 하였다고 한다. ‘언어학 대토론회’라고 알려져 있는 이 토론에서 스탈린은 마르크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에 홀로도비치는 『형태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르크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홀로도비치는 한국어의 종속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문법 형식으로부터 문법적 의미로 기술하는 것이지 반대는 아니라고 하며 이것은 스탈린이 말한 언어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 명제¹⁴⁾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검토

11) 마르는 홀로도비치의 대학원 과정의 지도교수였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역사언어학과 구조주의 언어학 쪽을 주로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러시아의 역사언어학자/음성학자 A.A. Potebnya를 자신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Khrakovsky 외 1993 7 참조).

12) 본고의 마르크주의의 이해는 김방한 역(1982 : 105~110)에 기반한 것이다. 마르크주의 언어학에 대해서는 표상용(2017)을 참조할 수 있다.

13) 1937년의 저작은 『형태론』을 말하는 것이고 1938년의 저작은 ‘언어의 구조’ 시리즈 중 아홉 번째로 나온 『한국어의 구조(Стро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를 말한다. 후자는 아직 구해보지 못하였다.

한 바로는 언어를 정치사상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와 같은 기술은 두 책을 통틀어서 위의 두 부분에 불과하다. 즉, 정치사상적인 색채는 두 책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구조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형태론』에 비해 『문법 개요』는 훨씬 방대하고 체계적이다. 『형태론』에서 행한 분석이 많이 바뀌었으며, 『형태론』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문제들이 『문법 개요』에서 다루어진 것들도 많다. 이런 점에서 『문법 개요』는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문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홀로도비치의 문법 의식을 살펴보고, 지면의 한계로 『형태론』과 『문법 개요』에서 모두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대조적으로 살펴보고, 『문법 개요』에서 단독으로 다루는 내용 중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3. 『형태론』과 『문법 개요』의 대조

1) 품사

홀로도비치는 『형태론』에서 한국어의 품사 분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태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용언의 형태·음운론적 분류와 동사에 결합하는 다섯 가지 문법 범주의 확립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형태론』에서는 주요 품사인 동사, 형용사, 명사, 수사, 부사에 대한 장만 따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문법 개요』에서는 품사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 주요 품사와 소

14)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에서 언어는 상부 구조라는 마르트의 주장을 비판하고 언어는 특유의 현상으로서 하부 구조나 상부 구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마르트는 의식이 언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달리 해석하자면 문법 형식은 문법 의미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탈린은 언어가 기호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문법 형식으로부터 문법 의미가 나온다고 보는 구조주의적 시각은 스탈린의 기본적 명제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류로 나누어 총 9개의 품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문법 개요』 : 45).

품사 :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소사류 : 후치사, 접속사, 소사

그러나 [표 1]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감탄사(междомётie) 대신 대명사가 하나의 절로 들어가 있다. 다른 곳에서도 감탄사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를 감탄사까지 포함된 10품사 체계로 보는 것인지 감탄사를 포함하지 않은 9품사 체계로 보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한국어를 10품사 체계로 보는 것이라면 이는 아카데미 러시아어 문법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1980)에서 설정한 러시아어의 품사와 동일한 체계가 된다(최지영 2016 : 72에서 재인용).

한편 따로 품사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용언의 관형사형에 대해 형동사(причастие)라는 용어를 쓰고 부사형에 대해 부동사(деепричастие)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홍택규 2000 : 384). 러시아어에서 형동사란 규정어¹⁵⁾와 술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한편 상·시제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등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과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를 의미한다(이희숙 역 2002 : 134~137). 부동사는 마찬가지로 부사와 동사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상황어¹⁶⁾이지만 분포가 동사와 비슷한 단어군을 가리킨다(이희숙 역 2002 : 140~142). 그러나 한국어에서 설정된 형동사와 부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은 각각 체언 수식과 용언 수식을 하는 부류이므로 형용사의 동사의 형태·통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어의 형동사, 부동사와는

15) 규정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 즉 학교 문법의 관형어를 가리키는 용어로 북한 문법에서는 아직 까지도 규정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민지 2017 참조). 이 외에도 중국어 문법에서도 규정어에 해당하는 定語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16) 상황어는 부사어 중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을 가리킨다. 이 용어 또한 규정어와 마찬가지로 북한 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는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보다는 러시아어 문법의 범위 내에서 한국어의 품사와 다양한 활용을 설명하려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⁷⁾

2) 격 체계

홀로도비치는 격 표지를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굴절하는 격어미로 보았다. 종합적 체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형태론』에서 『문법 개요』까지 이어진다. 『형태론』에서는 단순격과 복합격을 구분하는데, 단독격(Выделительный падеж), 주격, 제1속격, 제2속격, 제1여격, 제2여격, 대격, 구격, 공동격, 비교격, 처격, 종결격, 출발격의 13개의 단순격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단독격은 ‘은/는’을 말하는데 두 가지 기능으로 주제와 대조를 들고 있다. ‘은/는’은 『문법 개요』에서 정보 구조와 관련된 첨사로 규정되며 격어미 목록에서는 빠지게 된다. 주격은 ‘이/가, 께서’, 제1속격은 ‘의’, 제2속격은 ‘네’, 제1여격은 ‘에, 에게, 께’, 제2여격은 ‘한테’, 대격은 ‘을/를’, 구격은 ‘로/으로’, 공동격은 ‘와/과’, 비교격은 ‘보다, 보담, 보다가’, 처격은 ‘서’, 종결격은 ‘까지’, 출발격은 ‘부터, 부터’를 들고 있다. 의미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격이라는 인상이 강하고 분포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제되어 있지는 않다. 단순격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복합격이 된다.

『문법 개요』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격체계를 수립한다. 격체계를 제시하기에 앞서 한국어에서 격어미의 종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로 후치사의 존재를 들고 있다.¹⁸⁾ 후치사와 격어미가 함께 나타날 때 어느 것이 격어미인지

17)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겠으나 1922년 간행된 霽峰 李爾秀의 『鮮文通解』에도 부동사와 행동사라는 술어가 사용되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리필수(1922 : 60)에서는 ‘動詞가 副作(sic.)’로 되는 것을 부동사, ‘동사가 형용사로’ 되는 것을 행동사라고 정의하였다. 리필수(1922)에서는 이 외에도 동사의 명사형을 명동사, 형용사의 명사형을 명형용사, 형용사의 동사형을 동형용사 등으로 명명하는 일관된 술어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18) 『문법 개요』의 후치사는 『형태론』에서는 보조사로 분류되었었다.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격을 의미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에, (에)서, (으)로’가 공간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여 처격으로 몽똥거리거나 ‘이, 께서, 란, 로서’가 주어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주격이라고 부른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격은 반드시 형태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⁹⁾ 이를 통해 『문법 개요』에서는 어간격(∅), 주격(이/가, 께서), 호격(야, 아, (이)여), 속격(의, 네), 여격(에, 에게), 대격(을/를), 구격(으로), 공동격(와/과), 비교격(보다)의 9격을 단순격(『문법 개요』의 슬어로는 ‘제1계열 격’)으로 설정한다. 어간격은 아무런 외현적 격이 결합하지 않은 형태를 의미한다. 『형태론』과 비교할 때 어간격, 호격이 추가되었고 제1, 2속격과 제1, 2여격이 통합되었으며 처격, 종결격, 출발격이 목록에서 빠졌다. 이들은 후치사 혹은 소사로 분류된다.

흥미로운 것은 어간격(основной падеж)이다. 『형태론』에서는 이를 ‘어휘형(словарным)’이라고 불러 격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로 보았다. 어간격의 기능으로는 ‘은/는’의 앞에서 주제 표시, 목적어, 관형어, 호격, 계사 ‘이다’의 앞에 결합하는 성분, 구정보로서의 주제 표시 등을 들고 있다. 이 견해는 즉 소사²⁰⁾에 앞서는 명사와 ‘이다’와 결합하는 명사가 모두 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문장 내의 모든 명사가 격 굴절을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생성 문법의 격여과를 생각나게 한다. 첨사나 계사 앞에도 격어미가 있다는 견해는 목정수(2003) 등에서 보인다.

3) 형용사와 동사

한국어의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는 러시아어를 위시한 유럽어의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에 비해 현저히 작다. 『형태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어에서 동사는 인칭, 시제에 따라 굴절을 하지만 형용사는

19) 『형태론』의 격체계를 고려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자기 비판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0) 소사에 대해서는 4.3) 참조.

성, 격, 수에 따른 굴절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형태론』: 105~106).

첫째, 형용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어근, 문법 형태소, 사회적 형태소(칭자 높임 어미)로 나누어진다. 둘째, 어근의 형태·음운론적 변동 방식이 동사와 형용사에서 동일하다. 셋째, 동사와 형용사에 결합하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의 통사적 형식이 동일하다. 이상과 같은 동질성으로 인해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amstedt(1939)와는 달리 형용사를 하나의 품사로 독립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형태론』: 107~108). 첫째, 어근의 형태·음운론적 부류가 형용사 쪽이 조금 더 적다. 예를 들어 형용사는 ‘츠, ㅁ’ 발음 어간 등이 없고 ‘스, ㅁ’ 발음 어간의 개수가 아주 적다. 둘째, 형용사에는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가 결합할 수 없고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없다. 셋째, 관형사형 어미 ‘은’은 동사에서는 과거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에서 는 현재를 나타낸다.

형용사에 결합할 수 있는 문법 범주에 대해서는 『문법 개요』에서 조금 더 정교해진다. 태 접미사(4.1. 참조), 시제, 동작 양식, 서법, 관형사형, 접속형 등의 문법 범주와 형용사의 결합 가능 여부를 따지는데, 그 결론은 대체로 『형태론』에서와 같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문법 범주와의 결합에 있어서 형용사를 동사와 구별할 만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개요』에서 형용사를 독자적인 범주로 설정한 것은 위와 같이 활용하는 형용사는 형용사에 속하는 다양한 부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문법 개요』에서는 위와 같은 활용 형용사 이외에도 ‘민주주의적, 계획적’, ‘불요불굴의, 백전백승의’, ‘새’와 같은 비활용 형용사가 형용사에 포함되어 있다. 동사에는 비활용 동사가 없기 때문에 활용 형용사는 동사와 차이를 찾을 수 없으나 형용사라는 범주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문법 개요』의 논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형용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의 중 하나는 ‘곡식이 누르게 익소’, ‘그는

나를 가장 행복스럽게 만든 사람이었다.’와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누르게’, ‘행복스럽게’를 후치적 규정어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문법 개요』: 195). 즉, 여기에서 ‘누르게’, ‘행복스럽게’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상황어가 아니라 선행하는 주어 혹은 보어를 뒤에서 수식하는 규정어로 보는 것이다.

4) 형태·음운론적 ‘어기’

한국어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통사론적 분류는 단일 주제로는 『형태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홀로도비치는 일본어학에 정통하였고 일본어의 단활용설과도 친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²⁾ 그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형태론』에서 『문법 개요』로 이어진 한국어 용언의 형태·음운론적 분석은 일본어의 단활용설과 아주 유사하다.

『형태론』에서는 한국어의 용언을 어근(어기)과 문법 형태소의 결합으로 보는데, 문법 형태소를 자음으로 시작한다고 보고 어근과 문법 형태소 사이에 나타나는 모음을 어간 형성 모음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고-가면-가서]와 [먹고-먹으면-먹어서]를 비교했을 때 ‘먹-’ 쪽에서 나타나는 ‘으’와 ‘어’를 어간 형성 모음으로 처리하고, 어근에 어간 형성 모음이 결합한 결과를 어간이라고 부른다. 『형태론』에서는 ‘먹’을 ‘어근’, ‘머그’를 제1어간(очнова), ‘머거’를 제2어간이라고 이름하고 어근과 어간을 합쳐서 ‘어기(база)’라고 불렀다. 즉, 『형태론』에서 ‘어기’는 형태·음운론적 단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어근과 어미가 언제나 고정되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특

21) 『형태론』에서는 러시아어에서 의미에 따라 형용사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형용사를 성질, 관계, 소유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성질 형용사는 크기, 색깔 등 사물의 다양한 성질을 나타내는 파생 형용사이고, 관계 형용사는 사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속하는지 등 사물 또는 사람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파생 형용사를 말한다. 소유 형용사는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의 특수한 파생형을 의미한다. 이 중 한국어 고유어 형용사(『문법 개요』의 활용 형용사)에는 성질 형용사만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법 개요』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를 폐기하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형용사를 하위분류하였다.

22) 그는 『형태론: 8~9』의 각주에서 일본어의 동사 분류를 예로 들며 한국어와 유사하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단활용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어 동사를 분류하고 예시하고 있다.

정이 있다.

이 용어는 『문법 개요』에서 조금 수정된다. 어근을 단어 형성의 단위로 고정하고, 형태·음운론적 단위에 있어서는 어기와 어간만을 사용한 것이다. ‘떡’은 단어 형성의 단위로서 어근이자 형태·음운론적으로 어기가 된다. 여기에 각각 어간 형성 모음 ‘Ø, 으, 아/어’가 결합하면 제1, 제2, 제3어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어학의 단활용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조선어학계에서는 한국어의 용언을 홀로도비치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일본 조선어학계의 어기설이 홀로도비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참고를 하였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분석에 어기라는 단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前間恭作(1924)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前間恭作(1924)에서는 제1어기가 ‘떡’인 반면, 제2어기는 ‘머거’, 제3어기는 ‘머그’로 『형태론』과 순서가 다르다. 『형태론』에서 어기를 설정할 당시에는 前間恭作(1924)를 참조하지 않았거나, 참조하였더라도 (밝히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이를 조금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홀로도비치가 『형태론』에서 설정한 순서는 후에 어기설을 확장·발전시킨 河野六郎(1946) 등의 순서와 동일하여 河野六郎가 前間恭作의 순서를 바꾼 이유가 궁금해진다.²³⁾

5) 인칭: - 더 - 와 - 시 -

홀로도비치는 『형태론』에서부터 한국어 동사에 다섯 가지 문법 범주가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칭, 시제, 상, 법, 태’의 다섯 가지가 그것인데, 이 중 ‘상’은 『문법 개요』에서 ‘동작 양식(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로 용어가 바뀌

23) 일본어학의 ‘어기’와 서양 언어학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언어학적 평가는 김태우(2020)을 참조. 한편 시정곤(2015: 420~421)은 박승빈이 1909년 발간한 『인문일치 일본국육법전서』에 이미 그의 독특한 한국어 용언 체계에 기반한 철자법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河野六郎이 박승빈의 활용 체계를 참고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용어의 사용이나 각 어기의 순서 등을 고려할 때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었다. 그 외에 범주 설정에서 차이점은 없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인칭 범주이다. 다른 네 가지 범주는 한국어 연구자들이라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 인칭 범주를 설정하는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중세한국어의 ‘-오/우-’를 1인칭 어미로 본 예는 있으나(허용 1975) 현대 한국어에서 인칭 범주를 논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목정수 2014).

홀로도비치는 한국어에 러시아어의 인칭과 같은 형태론적 인칭 요소는 없다는 점을 두 책에서 모두 강조하였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칭과 비슷한 요소는 있다고 하며 『형태론』에서 한국어에서 인칭 범주에 해당하는 형태소로 ‘-더-’에 주목하였다. ‘-더-’는 발화의 주체가 화자이고 문장의 주어 가 제3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문법 개요』에서는 ‘-더-’를 서법의 범주로 분류하고 인칭의 범주에는 ‘-시-’를 포함시켰다. ‘-시-’를 1인칭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미로 본 것이다. 또한 ‘-아/어 주다(드리다)’도 인칭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다. 이 두 가지를 한국어에서 인칭과 관련된 2개의 기본적인 형태로 보면서, ‘-겠-’ 역시 인칭과 관련하여 의미가 달라지는 형태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시-’는 목정수(2014)에서 각각 대명사인칭과 동사인칭의 중간 단계의 인칭 표지, 인칭대명사로 파악하였고 ‘-겠-’은 인칭구조를 바꾸는 형태소로 보았으며 ‘-어 주다(드리다)’를 인칭 관련 요소로 보았다는 점²⁵⁾에서 홀로도비치의 문법 기술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한편, 인칭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면 안 되는 문법 범주로 청자 높임법을 들고 있다(『문법 개요』: 119~121). 청자높임법의 사용에 있어 화자의 성, 나이, 가정 및 사회적 지위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는데, 이는 인칭

24) 『형태론: 58~60』은 문법 범주를 단어 내부로 한정한다면 한국어에 인칭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단어 내부에 문법 범주가 없다고 하여 해당 언어에 그 문법 범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태론에 없더라도 통사론에 인칭이 존재할 수 있다며 한국어의 인칭의 또 다른 예로 인칭대명사를 들고 있다. 한편 이 대목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보조 용언의 예를 들며 통사론은 역사적으로 형태론으로 변화해 간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25) ‘-어 주다(드리다)’에 대해서는 목정수(2009)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교시에 의한다.

의 범주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범주 또는 방향성의 범주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칭 범주가 아닌 것은 다양한 어미의 선택이 주어의 인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 사실은 『형태론』에서도 한 번 강조했던 것인데, 러시아어의 인칭과 혼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관계의 범주라는 용어는 주체 높임법과 청자 높임법을 ‘사람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한 고영근·구본관(2008)을 떠올리게 한다.

6) 상과 동작 양식

‘-아/어 버리다’, ‘-아/어 가다, 오다’ 등의 보조 용언이 나타내는 의미를 ‘동사의 행위의 특성’이라고 규정하고 『형태론』에서는 이를 상(ви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상에는 지속, 완료, 증가, 중단의 네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법 개요』에 와서는 동작이 어떻게 경과하는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동작 양식의 범주(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라고 부르고, 이와 관련된 범주로 러시아어에서는 완망상(совершенный)과 비완망상(несовершенный)이라는 상 범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상 범주는 없고 이와 유사한 범주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동작 양식을 나타낸다고 견해를 수정하였다. 이것이 형태론적으로 표현되는 상의 범주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지, 완망상과 비완망상의 대립과 같은 문법적으로 대립하는 상 범주가 없다고 이해해야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²⁶⁾ 그러나 예로 열거하고 있는 동작 양식과 관련된 보조 용언의 목록은 『형태론』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형태론』에서는 ‘행위의 중단(미완성)’이라는 하위 범주를 두고 여기에 속하는 형태소로 관형사형에서 사용된 ‘-더

26) 홍택규(2000: 385~386)는 홀로도비치의 동작 양식을 동작류(aktionsart)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작류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또한 동작 양식에 관한 설명이 『조선어 문법』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보았는데 『형태론』에서도 이미 동일한 분류를 하였으며 『문법 개요』에서 든 보조 용언의 수가 『조선어 문법』보다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선어 문법』의 기술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를 들고 이것이 러시아어의 미완망상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나, 『문법 개요』에서는 ‘행위의 중단, 성질의 소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기술은 유지되고 더 세밀해지지만 이를 상으로 보지 않고 관형사형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로 보고 있다(『문법 개요』: 143~144). ‘-었던’, ‘-졌던’에서는 ‘-던’이 선행하는 시제 요소로 인해 시제의 의미를 잃는다고 보고 있다. 이는 ‘-었는, 었은, 었을’, ‘-졌는, 겼은, 겼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시제 요소 뒤에서 본래 시제를 나타내던 어미들은 수식의 기능만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문법 개요』: 139~140). ‘-은’과 다른 시제 요소가 겹칠 때 ‘-은’이 시제의 기능을 잃는다는 허웅(1975: 906~913)의 중세한국어 ‘-은/은’에 대한 기술을 떠올리게 한다.

4. 『문법 개요』의 문법 의식

『문법 개요』에서는 『형태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현시점에서 생각해 볼만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사적 의의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1) 타동성과 중동태

홀로도비치는 『형태론』에서 태를 주어와 행위의 관계로 정의하고 한국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사동태의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형태론』: 80). 한편 『문법 개요』에서는 태와 함께 타동성(Переходность)을 한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타동성이 문장의 주어 혹은 보어와 동작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태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여기에는 태와 타동성을 바꾸는 접사가 동형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타동성이 없는 자동사에 결합하여 타동사를 만들고 타동성을 갖게 하는 접사가 능동문에 결합하여 피동문을 만들거나 주동문에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드는 접사(그리고 중동문을

만드는 접미사까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문법 개요』: 79). 오히려 ‘떡이다-떡히다’와 같이 피·사동 접미사가 서로 다른 예를 예외적인 것으로 파악한다.²⁷⁾ 다만 타동성이라는 현상은 능동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피동문의 일부를 분리하여 중동문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문법 개요』: 82).

(1) 가. 오늘은 모래쟁이만 잡힌다.

나. 이런 그릇에도 붕어가 잡히오.

다. 몇 분이 지나서 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박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라. 어제는 끌리어왔지만 오늘은 제 발로 왔소이다.

일반적으로 (1)의 예문들을 모두 피동문이라고 파악하지만 (1가)는 무의지성의 뉘앙스, (1나)는 잠재적 가능성의 뉘앙스, (1다)는 독립적 활동의 자발성의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 세 가지를 전형적인 피동문인 (1라)와 다른 중동태의 구문이라고 하였다. (1가, 나, 다)는 동작이 주어에만 집중되어 주어의 한계 내에서 끝나는 동작인 일반적인 자동문과는 다르다는 것이다.²⁸⁾ (1)의 예에서 가능, 피해, 자동성 등의 의미가 나온다는 논의는 최현배(1937/1961: 422~423)에서부터 있어 왔으나, 이들은 여전히 피동태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상으로는 중동태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1960년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어 문법 1』(328)에 그대로 수용된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 중동태 범주를 설정한 최초의 연구이자 피동사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도 의미상 중동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²⁹⁾ 피동사로 이루어진 일부 문장을 중동태의 범

27) 한국어의 피·사동 접미사가 동일하다는 논의는 박양규(1978), 이항천(1991) 등에서 제기된 바 있고, 만주-통구스 언어들의 피·사동 접미사의 동형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우(2014) 참조.

28) 중동태는 행위가 주어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 반면 자동사가 형성하는 능동태는 주어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남수경(2011), 김현정(2019)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2) ‘-더-’와 ‘목적법, 전문법’

홀로도비치는 『형태론』에서 ‘-더-’를 인칭 범주에 넣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시 살펴본 바 있다. 거기에서 홀로도비치는 ‘-더-’가 언제나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지적하였으나 이를 시제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또한 ‘-더-’가 명제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형태론』: 100).

그런데 홀로도비치는 『문법 개요』에서 ‘-더-’가 포함된 종결어미 ‘-다 데다, -데, -더라’ 등을 목적법(目擊法, очное наклонение)이라고 하고, ‘화자에 의해 전달되는 사실을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법이라고 하였다.³⁰⁾ 또한 ‘-다더-’가 포함된 ‘-답니다, -다데, -다더라’ 등에 대해서는 ‘화자가 직접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문법(傳聞法, заочное наклонение)이라고 하였다.³¹⁾ 이는 현대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에 다름 아니다. ‘-더-’는 전통적으로 ‘(과거) 회상’(최현배 1937/1961, Ramstedt 1939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보고(Sohn 1975, 서정수 1977)’나 ‘목적(Yang 1972)’³²⁾ 등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것은 그보다 조금 이후의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법 개요』에서 ‘-더-’를 서법으

29) 한국어에 중동태와 관련된 논의는 대체로 자·타 양용동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중립동사, 중간동사, 중동사 등의 용어가 제안되었다. 홀로도비치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동사를 중립 동사(ней тральные)라고 하였다. 이는 중동태와는 관련 없이 사용된 술어이다.

30) 『문법 개요』에서 서법은 ‘동작에 대한 화자의 관계’ 또는 ‘현실과 발화의 관계’, ‘사건의 현실성에 대한 화자의 평가’로 정의되고, 양태는 ‘현실과 동작의 관계’로 정의된다(『문법 개요』: 104). 따라서 서법에는 추정, 개연성이 포함되고 양태에는 회상, 의도, 욕구, 시도, 가능성, 당위성 등의 의미 범주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 전자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에 해당하고 후자는 뿌리 양태(root modality)에 해당한다. 『형태론』에서는 이들을 모두 서법의 범주로 다루었다.

31) ‘-답니다, -다오, -단다도 전문법으로 분류하였다.

32) Yang(1972: 234)는 ‘-더-’를 회상법이라고 부르면서 그 영어 번역으로 ‘{saw, noticed, perceived, heard, witnessed} that’을 제시하였다.

로 분류한 것은 제법 선구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류는 이미 『조선어 문법』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어 문법』(193~194)에서는 시제 어미와 함께 사용되는 ‘-더-’를 ‘직접 전달의 토’라고 하고, ‘-다더라’ 등의 어미를 ‘간접 전달의 토’라고 불렀다. 『문법 개요』에서 ‘-던’을 과거형 복합 어미로 처리한 것 또한 『조선어 문법』에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문법 개요』의 ‘-더-’와 관련된 기술은 『조선어 문법』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소사

러시아어 문법에서 소사(частица)는 형태론적으로 불변하는 비자립어로 다른 문장 성분이나 문장에 강조 등의 보충적 뉘앙스를 부여하는 범주로, 조어 소사, 부정 소사, 의문 소사, 시간의 경과 혹은 결과성을 나타내는 소사, 양상 소사, 확신 또는 거부 반응 소사 등이 포함된다(최지영 2016L : 393~394). 현대 언어학의 용어로 바꾸자면 담화 표지와 양태 부사를 포함한 일부 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법 개요』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보조사로 분류되는 일련의 의존 형식 중 첨사에 해당하는 형식을 소사로 분류하였다. 보조사는 분포와 의미적 측면에서 두 개의 이질적인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부류를 흔히 후치사 또는 부치사 그리고 첨사라고 부른다. 후치사는 알타이어적 관점에서 Ramstedt(1939)에 의해 주목을 받았으나 첨사류는 홍윤표(1969), Yang(1972) 등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³³⁾

『문법 개요』에서는 한국어에 후치사와 소사가 있다고 하고, 그 목록을 다

33) 고영근(2018 : 66, 각주 17)에 따르면 첨사를 설정하고 여기에 품사 자격을 최초로 부여한 것은 1947년 간행된 유시욱의 『조선문법』이라고 한다. 이후 1949년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어 문법』에서 ‘조사(助詞)’라는 범주에 ‘도, 조차, 마저, 서건, 마다, 까지, 부터, 들, 만, (이)고, (이)나, (이)든지, 은/는, 커녕, 새려, 보다, 그려, 라도, 나마, (라)야, 야말로’ 등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문법서에서는 독립된 범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문법 개요』의 소사 범주 설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록이 유사함은 분명하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후치사 : 앞, 뒤, 우(위), 밑(아래), 안(속), 밖, 옆, 곁, 가운데, 관하여, 대하여,
위하여, 의하여, 통하여, 처하여, 비롯하여, 있어서, 말미암아, 이르러,
전, 후, 하, 더러, 한테, 부터, 까지, 더불어, …

소사 : 만, 뿐, 따름, 다만, 뿐더러, 라야, (이)나, (이)든지, 도, 조차, 까지, 야말로,
은/는, 아니, 못, (이)나, 처럼, 같이, 만큼, 커녕

후치사의 목록은 유럽어의 전치사와 등가의 것이라고 하여(『문법 개요』 : 206) Ramstedt(1939와 같이 전치사와 의미가 같은 표현들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³⁴⁾ 이 목록은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된 것이어서 이질적인 분포를 가진 다양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사는 러시아어에서 소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소사는 의미에 따라 한정소사 ‘만, 뿐, 따름, 다만, 뿐더러, 라야’, 분리소사 ‘(이)나, (이)든지’, 접합소사 ‘도, 조차, 까지’, 강화소사 ‘야말로, 도, 은/는’, 부정소사 ‘아니, 못’, 근사소사 ‘(이)나’, 비교소사 ‘처럼, 같이, 만큼, 만, 커녕’으로 하위분류된다. 역시 분포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와 같은 분류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나머지는 모두 명사에 후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부정 소사는 서술어의 앞에 오기 때문에 분포가 전혀 다르다. 후치 요소 중에서도 강화소사는 나머지와 분포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³⁵⁾

『문법 개요』의 소사 논의는 러시아어 문법에 경도되어 후치사와 소사를

34) 『형태론』에서는 이들을 보조사(служебными)라고 불렀으나 『문법 개요』에서는 명칭을 후치사(послелог)로 바꾸었다. 『형태론』에서는 보조사를 격에 보충되어 격의 고유한 의미를 명세하는 것으로 보고 동사성 보조사와 명사성 보조사가 있다고 하였다. 동사성 조사는 『문법 개요』의 후치사 중 동사의 활용형을, 명사성 조사는 명사로 된 것을 포함한다. 이들을 격을 설명하는 곳에서 함께 다룬 것으로 보아 하나의 품사로 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본다면 『형태론』의 체계는 (조사를 단어로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학교 문법의 체계와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어 문법에서는 대체로 ‘후(치)사’라는 명칭에서 ‘조사’로 변화하는 방향이 보인다고 하는데, 홀로도비치의 술어는 그 반대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를 자아낸다.

35) 현대한국어 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분류는 임동훈(2004)를 참조.

구분이 엄격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결국 소사라는 범주는 학교 문법의 보조사와 거의 다를 바가 없게 되어 보조사의 하위 부류에 대한 논의인 후치사와 첨사에 대한 논의와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³⁶⁾ 비록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지만 한국어의 후치적인 요소가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상대 시제

『형태론』에서 종결형의 시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기술되었다. 한 가지는 현재형 어기에 시제 형태소가 결합하는 것이고(먹+었, 먹+는, 먹+겠), 다른 하나는 과거형 어기에 시제 형태소가 결합하는 것이다(먹었+었, 먹었+겠, 먹었+을). 이처럼 분류를 하였으나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은 『문법 개요』에서다.

『문법 개요』에서는 과거형 어기에 시제 형태소가 결합한 경우, 처음 나타나는 시제 형태소를 상대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문법 개요』의 상대 시제는 개념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제를 표시하는 것을 절대 시제라고 하고, 발화시가 아닌 다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제를 표시하는 것을 상대 시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어제 영화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다’에서 내포절에 결합한 ‘는’은 말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주절의 시제인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문법 개요』의 상대 시제는 이보다는 완료(perfect) 혹은 결과 상태(resultative)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병석에 누웠습니다’는 상대적 현재 시제가 되는데, 이는 과거에 행해진 행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현재는 한계 동사(telic verb)와 함께 쓰일 때 그 의미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몇 시 되었소?, 세 시 되었소’에 나타나는 ‘-었-’도 절대적 과거 시제가

36) 이 논의는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 나온 이승욱(1957)과도 비교될 수 있다.

아니라 상대적 현재 시제라고 본다. 상대적 과거는 ‘모두 다 고요한 침묵에 잠겼었다’와 같이 어떤 동작이 과거에 행해진 다른 동작에 선행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상대적 미래는 ‘이 다음에 만날 때에 당신도 기사가 되겠습니다’와 같이 다른 미래의 동작보다 앞서 일어난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홀로도비치가 가진 문제의식은 한국의 시제 연구자들과 동일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건에 시제 형태가 두 개가 나온다면 그 둘의 기능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다른 행위의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었-’이 사용된 것이므로 상대 시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홀로도비치는 어근에 시제 형태소가 접미한 것을 다시 하나의 어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 시제 형태소 ‘-었-’이 어기 내부에 접요된다고(инфиксации) 처리할 수밖에 없는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다.

5) ‘은/는’과 정보 구조

홍택규(2000 : 387~388)에서 이미 지적된 사실이지만 『문법 개요』에서는 ‘어간격+은/는’을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홀로도비치는 글이나 말에서 문장은 이미 언급된 정보, 즉 구정보와 그것에 대한 서술부 즉 신정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문법 개요』 : 237~241). 그리고 이 두 부분을 나누는 경계가 소사 ‘은/는’이라는 것이다. ‘은/는’의 앞에 오는 것이 구정보가 되고 뒤에 오는 것이 신정보가 된다. 또한 이 구분은 주어-술어의 구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정보-신정보의 구분이 주어와 술어의 구분과 동일할 때에는 주어로 오는 성분이 어간격을 취하고 ‘은/는’이 결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어나 부사어에 ‘은/는’이 결합하고 문두로 전치된다고 한다. 또 술어는 명사절로 사용될 때 이외에는 구정보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개진하고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은/는’이 구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지만 ‘은/는’을 주제와 평언, 또는 구정보와 신정보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은 1970년대 이후에야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³⁷⁾ 『문법 개요』에서 ‘은/는’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의 시각에서는 여러 보완이 필요한 시론적인 주장에 불과하지만 한국어의 ‘은/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6) 그 외

이 외에도 『문법 개요』에는 흥미할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I. 북한의 방언과 남한의 방언을 비교하며 재미있는 음운 재구를 하고 있다. 남한 방언에서 언제나 경구개음으로 조음되는 /스/이 북한 방언 중 일부 방언에서 ‘잘’의 경우 치조음으로 발음이 되지만 ‘작다’의 경우 경구개음으로 발음된다고 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두 개의 /스/이 하나로 합류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설명은 /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스/의 음가의 차이는 어휘 확산의 속도 차이에 따른 것이겠으나 동시에 한국어의 음성학적인 연구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북한 방언에서 어말의 /르/이 [r]로 발음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II. 형용사를 설명하면서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있음에도 형용사로 처리한 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이처럼 홀로도비치는 표면에 드러난 문법 형태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또는 의미)을 더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는 ‘-을/를’을 처리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문장이 대격을 가지고 있다고 언제나 타동성을 지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37) 대표적으로 임흥빈(1972), 채완(1976) 등이 있다.

것이다(『문법 개요』: 78).

(2) 가. 물속을 다니다.

나. 몇백 년을 뒤떨어지다.

다. 춤을 추다

(2가)는 ‘장소의 대격’, (2나)는 ‘시간의 대격’, (2다)는 ‘내적 대상의 대격’이라고 하여 이들은 타동성을 지니지 않고 부사어라고 하였다(『문법 개요』: 251). 이들은 피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격표지가 주격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동성을 지닌 대격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Ⅲ. ‘-음’과 ‘-기’를 명사형 어미로 보지 않고 부정사(不定詞) 어미로 보고 있다(『문법 개요』: 24~25). 부정사가 전성(conversion)을 거쳐 명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Ⅳ. 사동태의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명령, 충동을 일으키는 것, 격려, 동의, 방입, 허가 등을 사동태의 세부적 의미로 제시하는데(『문법 개요』: 81), 이와 같은 다양한 사동의 의미는 후에 레닌그라드 유형론 학파의 사동문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에서 검증되게 된다.

Ⅴ. 각각의 단어에는 1차적 기능과 2차적 기능이 있다고 본다. 이 기능은 단어의 형태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전등재형, 즉 동사의 경우 ‘-다’로 끝나는 형태, 명사의 경우 어간격 형태가 1차적 기능이다. 꿀바꿈을 한 형태, 동사의 경우 관형어, 보어, 부사어 등은 2차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용사의 경우 1차적 기능이 관형사형인데 사전에는 ‘-다’의 형태로 등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용사의 1차적 기능이 관형사형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나 통시적으로 타당한 의견으로 생각된다. 이

에 대해서는 Kim(2017)을 참조할 수 있다.

Ⅵ. 이중주어문의 첫 번째 요소를 독특한 유형의 보어로 보고 두 번째 요소를 주어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요소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낮으며 항상 주어에 선행하기 때문에 보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요소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낮다는 논의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중주어문 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중주어 논의는 두 요소가 모두 주격으로 표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쪽이 자료를 더 잘 표상하는지는 경험적인 문제이다. 다만 직관을 통해 가능한 문장을 이용해 기술하는 것과 비모국어 화자로서 외적인 관찰에 의해 이루어진 기술이 차이를 보이고, 이것이 분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Ⅶ. 술어만 있는 문형인 일성분문(одночле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을 설정하였다. 일성분문은 다시 ‘제작년 봄이었다’, ‘벌써 여러해전이었다’와 같은 무인칭문과 ‘사람은 만물의 으뜸이라고 한다’와 같이 주어가 불특정한 부정인칭문으로 나누어진다. 이 역시 러시아어 문법에 이끌린 처리이다. 러시아어에서는 동사 술어를 지닌 문장에서 행위자의 한정성과 무관하게 인물은 언급되지 않고 행위만이 표현된다. 이 때 행위자가 한정적 대상이면 한정인칭문, 부정적 대상이면 부정인칭문이라고 한다. 또한 무인칭문은 적극적인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 문장을 의미한다. 이들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성분이 동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성분문이라고 하며, 명사문 역시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성분문으로 분류한다(이희숙 역 2002 : 190).

5. 결론

지금까지 홀로도비치의 두 권의 저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홀로도비

치는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한국어를 관찰·기술하여 지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중에는 한국에서는 당시까지 포착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법적 시각이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러시아어 문법에 경도되어 한국어를 기술한 부분도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러시아 한국어학의 저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방대한 책이 한국이나 일본 학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은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끈찌비치(2000 : 7)의 『문법 개요』는 “러시아로 쓰여진 문법서 중에서 아직도 학술적 가치를 잃지 않은 유일한 책”이라는 평가가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논점 이외에도 지면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산재해 있다. 또 1937년에서 1954년에 이르는 동안 한국어에 대한 이해의 변모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홀로도비치는 이후 여생을 언어 유형론에 투신했으나 이 책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논점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었고(管野裕臣 譯 1971, 끈찌비치 2000 참조) 그들이 러시아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이 가지는 연구사적 의의는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hrakovsky 외(1993 : 131~132)는 홀로도비치가 유럽어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가진 동양의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일반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바라본 시각과 후에 그가 수립한 언어 유형론의 체계가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고영근,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_____, 『민족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2010.
- _____, 『우리말 문법, 그 총체적 모습』, 집문당, 2018.
- 고영근·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 김민지, 『교육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문법 비교 분석 연구-격과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방한 역, 1982, 『언어학사』, 형설출판사.
- 김태우, 『만주-통구스어의 사동접미사와 피동접미사의 공용 현상에 대하여-문법화와 타동성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21, 2014, 53~82쪽.
- 김태우, 『어기 개념의 고찰』, 『형태론』 22(1), 2020, 1~42쪽.
- 김현정, 『양태부사 ‘질’과 한국어 중간태 구문-일본어·터키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어』 44(3), 2019, 425~463쪽.
- 끈째비치 역음·김영일 옮김, 『러시아에서의 현대 한국어 연구』, 도서출판 사람, 2000.
- 남수경, 『한국어 피동문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11.
- 목정수,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2003.
- _____,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태학사, 2009.
- _____,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2014.
- 박보영, 독일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 인식, 『교회사연구』 47, 2015, 51~90쪽.
- 박양규, 사동과 피동, 『국어학』 7, 1978, 47~70쪽.
- 서정수,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언어』 2(1), 1977, 97~127쪽.
- 시정곤, 『훈민정음을 사랑한 변호사, 박승빈』, 도서출판 박이정, 2015.
- 이승욱, 『국어의 Postposition에 대하여-그의 품사정립에 대한 시고-』, 『일석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 일조각, 1957, 493~509쪽[이승욱,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일조각, 1973, 101~116쪽에 재수록].
- 이향천, 『피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이희숙 역, 『러시아어 문법』, 도서출판 경진문화사, 2002.
- 임동훈,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2004, 119~154쪽.
- 임흥빈,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1972.
- 정 광, 『舊蘇聯의 언어학과 初期 북한의 언어 연구』, 『언어정보』 2, 1999, 143~217쪽.
- 조원형, 『독일인 로마 신부의 『Koreanische Grammatic(한국어 문법)』 제2판(1927) 연구』, 『한글』 313, 2016, 301~328쪽.
- _____, 『독일인 에카르트트의 한국어 문법 학습서 연구: 1923년판 『조선어 교제 문전』과 1965년판 『한국어 문법』을 대상으로』, 『한글』 80(1), 2019, 99~136쪽.
- 채 완, 『助詞 ‘는’의 意味』, 『국어학』 4, 1976, 93~113쪽.
- 최지영, 『러시아어권 한국어 문법서의 품사 체계와 대역어 양상』, 『노어노문학』 28(1), 2016, 67~85쪽.
- _____, 『한국어 문법 용어의 러시아어 대역어 사용 양상 연구-홀로도비치와 미주르의 문법서를 중심으로-』,

- 『언어학 연구』 40, 2016ㄴ, 387~402쪽.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1961.
- 표상용, 『마르주의 언어학의 공과 과 - 마르주의에 대한 재평가 -』, 『언어와 언어학』 77, 2017, 169~194쪽.
- 허 응,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1975.
- 홍윤표, 『15세기 국어의 격 연구』, 국어연구 21, 1969.
- 홍택규, 『A. A. Холодович,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 ского языка(한국어문법개요), Москва :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1954, 320Pp.』, 『형태론』 2(2),
2000, 383~390쪽.
- 菅野裕臣 譯, 『蘇聯의 韓國語學』, 『아세아연구』 42, 1971, 187~216쪽.
- 菅野裕臣, 『A.A.Xodolovich : Oчерk grammatiki korejskogo jazyka, Moskva 1954』, 『言語学論叢』 6, 東京
: 東京教育大学言語学研究会, 1965, 45~55쪽.
- 前間恭作, 『龍歌故語箋』, 東京 : 東洋文庫, 1924[동경대학문학부 국어학국문학연구소실 편, 『前間恭作著作集
: 下卷』, 1974, 1~166쪽에 재수록].
- 河野六郎, 『中期朝鮮語の完了時称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東京 : 平凡社, 1946/1979, 467~
480쪽[이카라시 고이치(五十嵐孔一) 역, 『형태론』 8(2), 2006, 451~462쪽].
- Ilya, B., 『A.A. Kholodovich 『한국어 문법』의 통사론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Khrakovsky, V. & A. Ogloblin, "The Kholodovich school of linguistic typology : 1961~1991", *The
Petersburg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2), 1993ㄴ, pp.125~143.
- _____, "The Kholodovich school of linguistic typology : 1961~1991", *The
Petersburg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3), 1993ㄴ, pp.113~126.
- Kim, T., "Korean verbal base is determined based on usage, not informativeness", in Erlwine, M. (ed.),
Proceedings of GLOW in Asia XI volume 1, 2017, pp.127~140.
- Nedjalkov, V. and V. Litvinov, "The St Petersburg/Leningrad Typology Group", in Shibatani, M. and
T. Bynon (eds.), *Approaches to Language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215~271.
- Ramstedt, G. J., *A Korean Grammar*, Helsinki : Suomalais-Ugrilainen Seura, 1939.
- Sohn, H., "Retrospection in Korean", 『어학연구』 11(1), 1975, 87~103쪽.
- Yang, I., *Korean Syntax :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서울 : 백합출판
사, 1972.
- Васильев, А. Г.,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1906~1977)", in Ванин, Ю. В. (ed.),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ю : Россий 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осква :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оссий 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04, pp.223~
235.

A.A. Xolodovich's study of Present Day Korea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mparison of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 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 and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 ского языка –

Kim, Tae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wo Korean grammar books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 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 published in 1937 and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 ского языка* published in 1954, both written by Russian Japanese/Korean linguist Alexander Xolodovich and to shed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the books. In these two books, Xolodovich analyzed Korean in terms of general linguistic perspectives and systematically described the structure of the Present Day Korean. He set up five grammatical categories – tense, mood, voice, aspect, person – of Korean verb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 studies and a part of speech, so-called particles. He also clarified that there was a middle voice in Korean without regard to labile verbs' presence and established the evidentiality category in the mood. It is also notable that he related '-un/nun' with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a sentence. Despite limitations such as setting up person category, particles, morpho-phonological base, and single constituent sentences due to his strong inclination to Russian grammar, these two grammar are pioneering works that contain a lot of subjects still valid until now.

*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Key words: Korean grammar, person, middle voice, evidentiality, information structure